

채지민 개인전: 『Stage of Fragments』 26. 7. 11. – 8. 15.

우리는 이제 풍경을 직접 보기보다, 이미지로 구성된 풍경을 먼저 본다. 하늘은 화면으로 잘리고, 공간은 렌더링되며, 사물은 레이어처럼 겹쳐지고, 장면은 언제든지 편집 가능한 상태로 떠 있다. 채지민의 회화는 바로 이 동시대적 이미지 감각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빠른 디지털 화면 안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작가는 사진, 가상의 원근, 계산된 조명, 선명한 색면, 잘린 프레임의 감각을 유화의 느린 시간으로 다시 통과시킨다.

채지민의 화면은 언뜻 명료하다. 푸른 하늘, 초록의 잔디, 반듯한 벽, 계단, 문, 창, 동물과 인물은 또렷한 윤곽 안에 놓인다. 그러나 이 명료함은 곧 하나의 현실로 정착하지 않는다. 벽은 건축물이면서 동시에 이미지를 가리는 표면이고, 문은 통로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장면을 부르는 프레임이다. 계단은 이동을 암시하지만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으며, 동물과 인물은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보다 장면의 가장자리에 잠시 머문다.

이번 전시 〈Stage of Fragments : 수동 렌더링의 풍경〉은 채지민의 회화가 만들어내는 이 불안정한 공간의 조건에 주목한다. 작가에게 화면은 완성된 세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미지 파편들이 임시로 세워지는 무대다. 그곳에서 풍경은 배경이 아니며, 사물은 설명의 도구가 아니다. 각각의 요소는 독립된 이미지로 남아 있으면서도, 같은 화면 안에서 서로를 밀고 당기며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만든다. 〈Stage of Fragments〉연작에서 이러한 구조는 더욱 뚜렷하다. 화면 속 건축적 구조물, 잘린 하늘, 색면, 동물, 인물, 계단과 벽은 하나의 서사를 향해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각기 다른 이미지들이 한 장면 안에 불려온 듯 놓인다. 작가는 이질적인 대상들을 자연스럽게 융합하지 않는다. 대신 그 어긋남을 그대로 남겨둔다. 이 어긋남은 채지민 회화의 긴장이자, 관람자가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지점이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 중 〈The Orange Wall Does Not Cover the Whole World〉에서 거대한 주황색 벽은 세계를 가리는 듯 보인다. 하지만 벽은 끝내 세계 전체를 덮지 못한다. 구멍과 틈, 가장자리 너머로 하늘과 들판, 동물과 인물의 일부가 새어 나온다. 가리는 것은 동시에 드러내고, 닫힌 표면은 다시 새로운 장면을 발생시킨다. 이 작품에서 벽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회화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남겨두는지를 묻는 장치가 된다. 채지민의 동시대성은 여기에 있다. 그는 회화를 과거의 매체로 복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 이미지가 생산되는 방식(합성, 절단, 모델링, 렌더링, 레이어, 프레임)을 회화의 물질적 시간 안으로 되가져온다. 그의 그림은 디지털 이미지처럼 빠르게 소비되지 않는다. 손으로 다시 렌더링된 장면들은 속도를 늦추고, 관람자로 하여금 이미지가 어떻게 공간이 되고, 공간이 어떻게 다시 평면으로 돌아오는지 바라보게 한다.

〈Stage of Fragments_ 수동 렌더링의 풍경〉은 완성된 이야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전시는 이미지들이 세계가 되기 직전의 상태, 장면이 사건이 되기 직전의 순간, 그리고 평면이 공간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는 조건을 보여준다. 채지민의 회화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경이 조립되는 과정을 본다. 그리고 그 조립 중인 세계 안에서, 이미지가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각하게 된다.